

2030세대의 가족수용도에 눈높이를 맞춘 가족정책 개발

수행과제명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Ⅰ)

과제책임자 ... 장 혜 경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41, e-mail: hkchang@kwidimail.re.kr

요 약

가족정책은 미래 가족의 열쇠를 잡고 있는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결혼-동거-출산·양육으로 연결되는 가족형성의 ‘규범적 단계’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음. 이들은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그 단계를 이탈하는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수용도가 높았음. 따라서 이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규범적 단계들을 강조하는 정책들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1. 배경 및 문제점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 급격한 가족의식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변화의 기점에 서 있음. 가족의 변화는 모든 기존의

사회제도 및 정책의 기저를 흔드는 현상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에서 목격되고 있는 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가족의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예외가 아님. 가족의 변동은 미래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생활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

본 연구는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인들의 미래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들의 향후 한국가족의식 및 가치, 형태 및 관계 등을 예측하였음. 이에 따라 가족정책에서 보다 중점을 기울여야 할 정책범주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본 연구의 대국민 미래가족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족관계에서 자녀성공제일주의는 지속되지만 상호지원 및 부양책임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가족생활과 관련해서는 결혼, 장례, 제사, 명절 등 가족의례도 지속되지만 그 의미는 가족 전체의 행사보다는 개인적 축제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가족의 미래모습에 대한 예측은 집단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응답을 하고 있었던 점이 특징적임

그러나 가족의 수용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2030년 한국사회에 나타날 다양한 가족구성방식에 대한 6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서로 관련성이 높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첫 번째 범주는 결혼-동거-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정상가족’의 단계를 위반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구성방식으로서, ‘독신’, ‘무자녀부부’, ‘떨어져 사는 부부’임. 두 번째 범주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규범의 탈피에 해

당하는 것으로,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동성결혼’으로 구성하였음

이와 같은 두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인들의 가족수용성 지형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음. 군집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족수용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서, 주로 20대·30대의 젊은 세대,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대졸이상 여성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군집에 속해 있었던 점도 특징적임. 군집2는 양쪽 수용성이 모두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탈규범적인 가족수용성이 매우 낮은 집단으로 비중이 가장 큼. 이들 집단은 특히 50대·60대 노년층, 저소득층, 중졸이하 학력에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음. 군집3은 가족구성의 다양성은 수용하지만, 탈규범적인 가족구성의 수용성에는 적극 동의하지 않는 모순적 집단임. 특히 소득과 학력에서 중간인 집단들이 이와 같은 군집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이 특징적임. 마지막으로 집단4는 양쪽 수용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매우 작아 그들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음



[그림 1] 2030년경 한국인의 가족수용성 지형

3. 정책제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 20, 30대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졸이상 여성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 발견되었음. 이들 집단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 등 핵심적 가족문제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이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결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또한 이들은 출산·양육의 전제조건으로 결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지 않음

이러한 집단에게 결혼연령을 낮추는 정책과 같이 결혼절차와 관련된 정책은 의미있게 와닿지 않을 확률이 높음. 또한 아이가 없거나 한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게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한 출산장려책 또한 효과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특히 이들에게 ‘정상가족’ 외에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비록 숫자는 아직까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래 가족의 열쇠를 잡고 있는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정책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 이들은 더 이상 규범적인 당위성에 의해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 세대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범적인 당위성보다는 결혼과 출산 자체의 매력에 의해 미래 세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사회적 인구재생산의 비용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의 피로도를 낮추고 친밀성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저출산 및 돌봄과 관련하여 많은 대책들이 제안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가족문제의 열쇠를 잡고 있는 2030세대의 미래 가족의식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음. 이와 같은 관점의 이동을 통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